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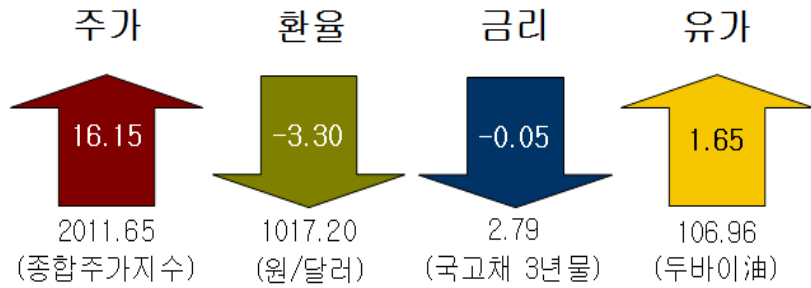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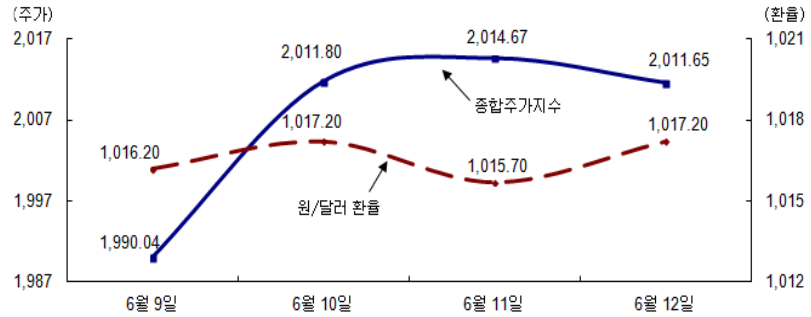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우리나라 가계의 엔젤계수 특징과 시사점
- 소비지출 중 교육·보육비 비중 여전히 높다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9~6.12)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 | |
|-------------------------|----|
| 주요 경제 현안 | 1 |
| □ 우리나라 가계의 엔젤계수 특징과 시사점 | 1 |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13 |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최 성 근 선임 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Executive Summary

□ 우리나라 가계의 엔젤계수 특징과 시사점 - 소비지출 중 교육·보육비 비중 여전히 높다

■ 연구 배경과 목적

최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수지 악화는 물론 계층간 교육 격차를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교육비 지출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전체 가구주 응답 중 7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OECD국가(24개국)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가계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보육비 비중을 나타내는 '엔젤계수'를 추계하고 그 추이와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가계의 교육·보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엔젤계수의 추이와 특징

1) 엔젤계수의 정의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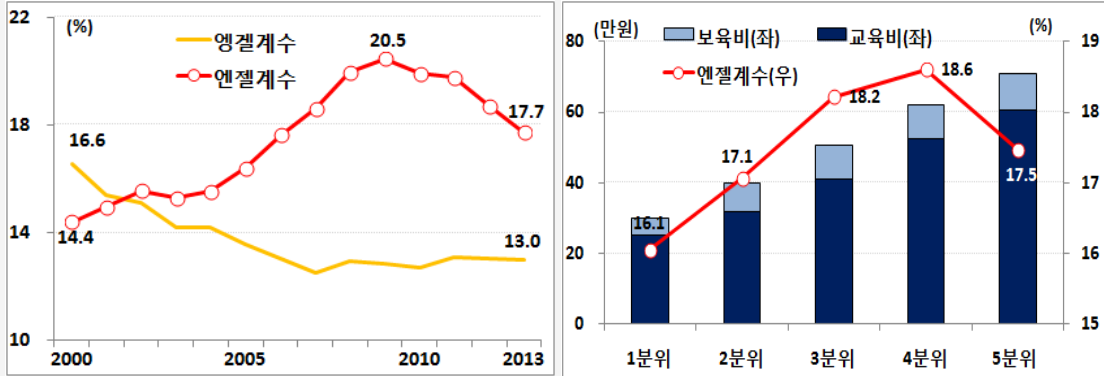
'엔젤계수(*angel coefficient*)'란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보육비(유치원비, 보육료, 장난감 등)와 교육비(초·중·고교 수업료, 학원 및 보습교육비, 학교보충교육비, 교복비 등)를 넓은 의미에서 엔젤계수의 범주로 포함하여 추계하였다. 특히 교육·보육비는 자녀가 있는 가계에만 해당되므로, 18세 미만의 자녀와 거주하며 실제 교육·보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를 '**엔젤가구**'로 정의하고 엔젤계수를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 엔젤가구는 2013년 기준 전체 1,140만 가구 중 절반 수준인 561만 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자녀수는 1.7명으로 나타났다. 엔젤가구의 엔젤계수는 2000년 14.4%에서 상승하여 2009년 20.5%에 달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3년 17.7%를 나타냈다.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비 지출비중을 나타내는 '엔젤계수'와 비교할 때, 엔젤가구의 엔젤계수는 2002년부터 엔젤계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즉, 자녀의 교육과 보육비 지출 부담이 기초생활비에 해당하는 식료품비 지출 부담보다 높은 것이다.**

2) 엔젤계수의 특징

첫째, 30-40대, 고학력, 여성가구에서의 교육·보육비 지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0대의 엔젤계수는 17.8%로 가장 높았고, 학력별로는 대학원 이상 가구의 엔젤계수가 20.0%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가구의 엔젤계수는 18.3%로 남성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 지출액은 작지만, 소득 및 소비수준이 낮아 교육·보육비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맞벌이가구 및 양부모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구의 엔젤계수는 18.0%로 홀벌이가구의 17.5%보다 높았다. 반면 한부모가구의 엔젤계수는 13.8%로 양부모가구의 17.8%보다 훨씬 낮았다. 이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과 소비수준이 매우 낮아 교육·보육비 지출 여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엔젤가구의 소득 5분위 가운데 중산층에 속하는 4분위(18.6%)와 3분위(18.2%)의 엔젤계수가 고소득층인 5분위(17.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0년~2010년에는 3분위의 엔젤계수가 5분위보다

작았으나, 2013년에는 3분위의 엔젤계수가 5분위보다 높아졌다. 이는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이전보다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보육비 지출액은 2000년에 5분위가 1분위의 2.7배였으나, 2013년에는 2.4배로 격차가 축소되었다. 이는 소득수준에 비해 저소득층 엔젤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 부담이 그만큼 커졌음을 시사한다.

<엔젤가구의 엔젤·엔젤계수 추이 2000~2013> <소득계층별 엔젤계수와 교육·보육비 2013>



넷째, 정규교육보다 사교육비의 비중이 크고, 특히 입시 및 보습학원에 대한 지출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전체 교육·보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4.7%, 2010년 60.3%, 2013년 68.1%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 중 입시 및 보습학원 지출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가장 높게 나타나 사교육비 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부 정책의 효과 측면에서 교육·보육비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있지만, 사교육비 규제 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2013년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보육비 지출증가율은 2012년 -18.1%, 2013년 -23.5%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등 교육비 지원 제도가 확대되면서 정규교육비 지출 증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교육비는 2013년 전년대비 5.4% 증가하여 학원법 개정안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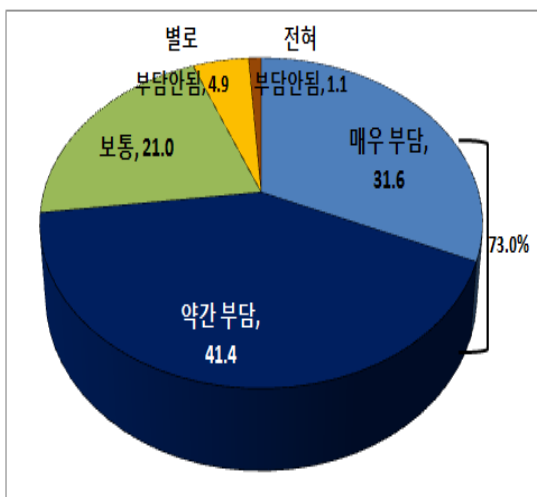
■ 시사점

과중한 가계의 교육·보육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첫째, 교육비와 보육비 부담, 즉 엔젤계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 교사 충원 및 교육 프로그램 선진화, 국공립 보육시설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취약 가구에 대한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한부모가구, 여성가구 등 취약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업료 및 방과후 자유수강료 지원을 확대하고, 학습교재나 교복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바우처 지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입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정규교육과정에서 직업 및 적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의 질적 향상 및 입시 컨설팅 서비스 확대 제공, 양질의 모바일 및 인터넷 교육방송(이러닝) 콘텐츠의 확대 제공 등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넷째, 교육·보육비 지원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 확충 및 규제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1. 연구 배경과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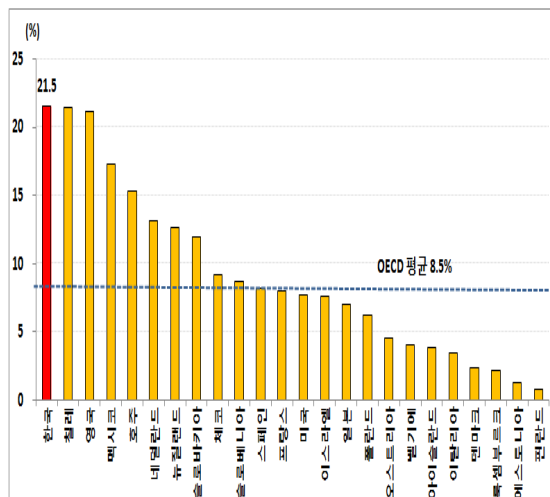
- (연구 배경)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수지 악화는 물론 계층간 교육 격차를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가구주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전체 가구의 73%인데 반해, '부담이 안된다'는 응답은 6.0%에 불과하여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가구주가 느끼는 부담감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임
 - OECD국가(24개국)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하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가계 부담 비중은 우리나라가 21.5%로 가장 높고, OECD 평균인 8.5%보다 13.0%p 높음
 - 이는 공교육 지출만 고려한 것으로 사교육비까지 포함할 경우 가계의 교육비 부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판단됨
 - 이렇게 교육비 부담이 가중될수록 가계수지가 악화될뿐 만 아니라 계층간 교육 격차가 심화될 우려
 - 지출을 줄이기 힘든 '경직성 비용'에 가까운 교육비 부담 확대는 곧 가계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
 - 2013년 서울지역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2.8만원으로 읍면지역(14.7만원)에 비해 2.23배 많고, 2010년(2.01배)보다 격차가 확대¹⁾
- (연구 목적) 가구에 따른 자녀 교육 부담과 교육 기회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2013>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3.

<OECD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 비중>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3.

1) 통계청, 2013년 사교육비조사.

2. 엔젤계수의 정의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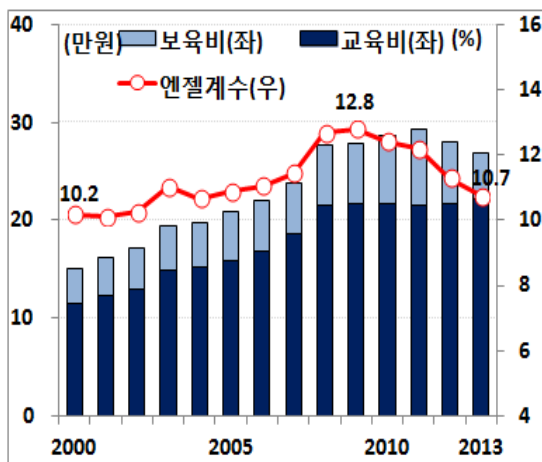
1) 엔젤계수의 정의와 추이

- (정의) '엔젤계수(angel coefficient)'란 가계의 총소비지출액 중 18세 미만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²⁾
 - 엔젤계수는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수업료, 과외비 등 자녀의 보육 및 교육 관련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보통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엔젤(angel)은 본래 어린이를 가리키는 단어로서 초등학교 취학 전후의 어린 아이들을 지칭
 - 본고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보육비와 교육비를 대상으로 엔젤계수를 추계하고자 함
 - 엔젤계수의 추계를 위해 자녀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실제로 지출하는 항목들을 가계동향조사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선별하였음
 - **보육비** : 유치원비, 보육료, 아동용 내외의, 아동화, 유아용 학습교재, 장난감, 산후조리원 이용비
 - **교육비** : 지출 항목 중 초·중·고교 수업료, 학원 및 보습교육비(성인미포함), 학교보충교육비, 초중고생 학습교재와 참고서, 남녀 교복비, 독서실이용
- (연구 방법)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엔젤계수와 교육·보육비 지출 추이 및 특징을 분석하여 가구별 교육 부담과 교육 기회의 격차를 살펴보고자 함
 - 가계의 소비지출 대비 교육 및 보육비 지출 비중인 엔젤계수의 분석을 통해 가구별 자녀 교육 부담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음
 - 또한 가구별 교육비와 보육비 지출액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자녀들의 교육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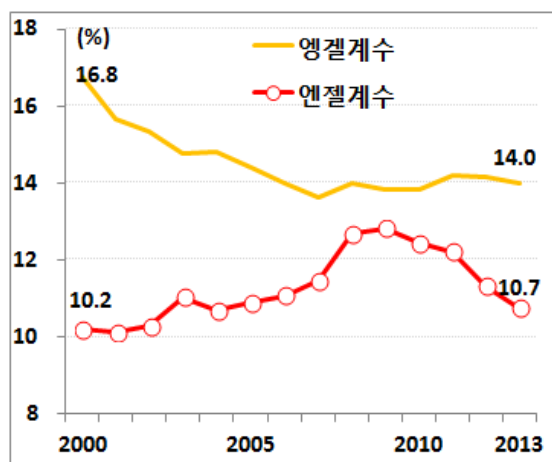
2) 2013년 현재 우리나라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81%에 달하며, 25~34세의 청년층의 경우 고등학교 이수율이 98%에 달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엔젤계수를 분석하고자 대상 범위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한 교육과 보육 지출로 확대하였음.

- (엔젤계수 추이) 전체 가구의 교육 및 보육비 부담은 2009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식료품비 지출 부담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가구의 엔젤계수는 2000~2009년 사이에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 이후 하락세 지속
 - 2000년 엔젤계수는 10.2%를 기록했으나, 2009년 12.8%를 기록하였고, 2013년 10.7%로 하락하였음
 -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부담액은 2000년 11.4만원에서 2010년 21.8만원, 2013년 22.2만원으로 증가. 가구당 월평균 보육비 부담액은 동기간 3.7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4.7만원으로 감소
 - 전체가구의 교육 및 보육비 부담은 식료품비 지출 부담에 비해 낮은 수준
 - 가계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지출 비중인 엔젤계수는 2000년 16.8%에서 하락하여 2013년 14.0%를 나타내고 있으나, 엔젤계수(10.7%)보다는 높은 수준임
 - 실제 식료품비 부담액은 2013년 현재 가구당 월평균 35.1만원으로 교육비와 보육비를 합한 26.9만원보다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엔젤계수는 엔젤계수와 달리 자녀교육이 이루어지는 가계에 한해 교육비가 지출된다는 특성 때문에 자녀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추계할 필요

<전체 가구의 엔젤계수 추이 2000~2013>



<엔젤계수와 엔젤계수 추이 2000~201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 주 : 1)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이하 동일).
- 2) 엔젤계수 = (교육비+보육비) / 총소비지출.
- 3) 교육비 : 초·중·고교 수업료, 학원 및 보습교육비(성인미포함), 학교보충교육비, 초중고생 학습교재와 참고서, 남녀 교복, 독서실 이용비, 보육비 : 유치원, 보육료, 유아용 내외의, 아동화, 유아용 학습교재, 산후조리원.
- 4) 엔젤계수=식료품비/총소비지출.

○ (엔젤가구 추계) 보육·교육비를 실제 부담하는 '엔젤가구'의 수는 전체가구의 절반수준인 561만 가구임(2013년 기준)

-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실제 교육비와 보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를 '엔젤가구'로 정의하고 이를 추계
 - 교육비와 보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자녀가 없는 가구 또는 자녀가 독립한 가구 등이 포함될 경우 엔젤계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밖에 없음
- 2013년 총 1,140만 가구(2인 이상 도시 가구 기준) 중 18세 미만의 자녀의 보육·교육비를 지출하는 '엔젤가구'는 총 561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
 - 전체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49.8세인데 반해, 엔젤가구의 평균연령은 41.8세로 낮게 나타남
 - 전체가구의 가구원수는 3.2명, 자녀수는 0.8명인데 반해, 엔젤가구의 가구원수는 3.8명, 자녀수는 1.7명으로 높게 나타남
 - 엔젤가구 가구주의 대졸자비율은 64.9%로 전체가구 46.9%에 비해 높지만, 맞벌이비율은 21.0%로 전체가구의 37.0%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엔젤가구의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457만원, 소비는 293만원으로 전체가구의 소득 407만원, 소비 251만원보다 높게 나타남
- 본고에서는 실제적인 교육 및 보육비 부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엔젤가구를 대상으로 엔젤계수와 교육·보육비를 추계하고 분석하고자 함

<자녀있는 가구의 추계 2013>

| 구분 | 가구수 (만가구) | 가구주 연령(세) | 가구원 수(명) | 자녀수 (명) | 대졸자 비율(%) | 맞벌이 비율(%) | 소득 (만원) | 소비 (만원) |
|----------|--------------|--------------|-------------|------------|--------------|--------------|------------|------------|
| 전체 가구 | 1,140 | 49.8 | 3.2 | 0.8 | 46.9 | 37.0 | 407 | 251 |
| 엔젤 가구 | 561 | 41.8 | 3.8 | 1.7 | 64.9 | 21.0 | 457 | 29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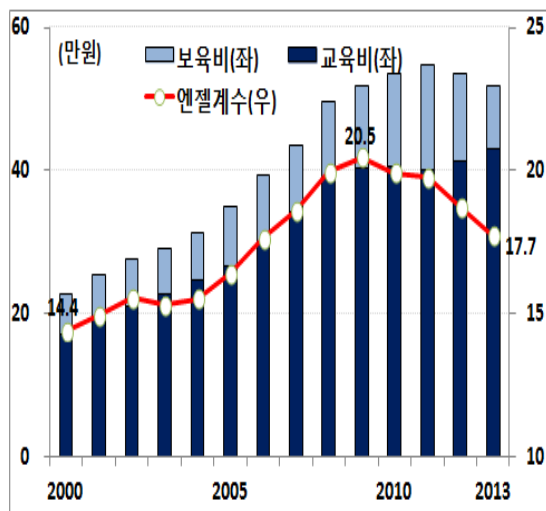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경상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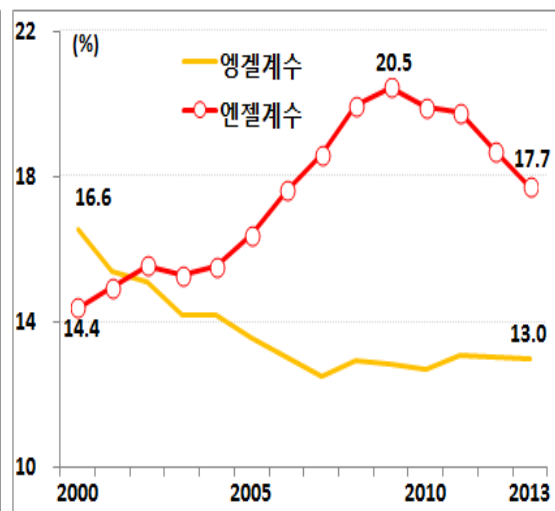
○ (엔젤가구의 엔젤계수) 엔젤가구의 엔젤계수는 앵겔계수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엔젤가구의 엔젤계수는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 2013년 17.7%를 기록
 - 엔젤가구의 엔젤계수는 2000년 14.4%에서 2009년 20.5%로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며 2013년 17.7%를 기록
 -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는 2000년 17.0만원에서 2010년 40.6만원, 2013년 43.0만원으로 증가. 보육비는 동기간 5.5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8.8만원으로 감소
- 엔젤가구의 엔젤계수는 식료품 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앵겔계수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 2000년 앵겔계수는 16.6%로 엔젤계수보다 높았으나 이후 역전되어 엔젤계수가 훨씬 높아졌고, 2013년 현재 엔젤계수는 17.7%, 앵겔계수는 13.0%임
 - 실제 엔젤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은 2013년 기준으로 38.0만원으로 전체가구보다 높음. 그러나 교육비와 보육비 지출은 총 51.9만원으로 식료품비 지출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이는 실제 자녀 교육 부담을 안고 있는 엔젤가구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지출보다 보육과 교육비 지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엔젤가구의 엔젤계수의 추이 2000~2013>



<엔젤가구의 앵겔, 엔젤계수 추이 2000~201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엔젤계수와 앵겔계수의 산출방법은 전체가구와 동일.

2) 엔젤계수의 특징

- (가구주별) 30~40대, 고학력, 여성가구에서의 교육·보육비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 : 30~40대 가구주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남
 - 30~40대의 엔젤계수는 17.8%로 가장 높고, 50대 이상은 17.2%, 20대 이하 7.5%로 나타남
 - 이는 30~40대 중년 가구주의 교육비와 보육비 지출 부담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다만 50대 이상의 가구의 경우 가구수가 적고, 자녀의 고교생 비율이 높아 평균 교육비 지출액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학력별 :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보육비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 이상 가구의 엔젤계수는 20.0%로 가장 높고, 대졸이하 18.3%, 고졸 이하 15.9%, 중졸이하 11.4%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열이 높고, 고소득 직종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보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성별 : 여성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남성가구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가구의 엔젤계수는 18.3%로 남성가구의 17.7%보다 높은 수준임
 - 이는 여성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액이 남성가구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소비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보육 지출 부담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연령, 학력, 성별 교육·보육비와 엔젤계수 비교 2013〉

| 구분 | 가구수 (만가구) | 소득 (만원) | 교육·보육비 (만원) | | 엔젤계수 (%) | | |
|----|--------------|------------|-------------|------|-------------|------|------|
| | | | 교육비 | 보육비 | | | |
| 연령 | 20대 이하 | 7.0 | 301 | 16.4 | 6.5 | 9.9 | 7.5 |
| | 30-40대 | 496.3 | 460 | 52.2 | 42.5 | 9.7 | 17.8 |
| | 50대 이상 | 57.5 | 450 | 52.3 | 52.3 | 1.3 | 17.2 |
| 학력 | 중졸 이하 | 3.5 | 276 | 23.5 | 20.1 | 3.3 | 11.4 |
| | 고졸 이하 | 193.5 | 385 | 41.9 | 36.5 | 5.3 | 15.9 |
| | 대졸 이하 | 316.3 | 479 | 55.4 | 45.1 | 10.3 | 18.3 |
| | 대학원이상 | 47.5 | 615 | 71.7 | 57.7 | 14.0 | 20.0 |
| 성별 | 남성 | 496.5 | 471 | 53.0 | 43.7 | 9.3 | 17.7 |
| | 여성 | 64.3 | 348 | 43.7 | 38.2 | 5.5 | 18.3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1) 가구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엔젤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은 경상소득 기준.

○ (가구 특성별) 맞벌이, 비상용직, 양부모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맞벌이가구** : 맞벌이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홑벌이가구보다 높음
 - 맞벌이가구의 엔젤계수는 18.0%로 홑벌이가구의 17.5%보다 높게 나타남
 - 다만, 엔젤계수의 차이는 0.5%p로 홑벌이가구의 소득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보육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비상용직 가구** : 비상용직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상용직에 비해 높음
 - 가구주의 직업이 임시 또는 일용직 근로자인 비상용직가구의 엔젤계수는 18.2%로 상용직가구의 17.5%보다 높게 나타남
 - 이는 비상용직 가구의 소득과 소비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교육비와 보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비상용직의 보육비 지출액이 가구당 월평균 6.7만원으로 상용직(10.1만원)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 교육 격차가 적지않게 존재함을 시사
- **한부모가구** : 양부모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한부모가구에 비해 높음
 - 한부모가구의 엔젤계수는 13.8%로 양부모가구의 17.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한부모가구의 경우 보육비 교육·보육비 지출 규모 자체가 양부모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이는 한부모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 여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맞벌이, 비상용직, 한부모 가구의 교육·보육비와 엔젤계수 비교 2013>

| 구분 | 가구수 (만가구) | 소득 (만원) | 교육·보육비 (만원) | | 엔젤계수 (%) | |
|--------|--------------|------------|-------------|------|-------------|------|
| | | | 교육비 | 보육비 | | |
| 맞벌이가구 | 239.0 | 530 | 56.9 | 48.8 | 8.1 | 18.0 |
| 홑벌이가구 | 321.8 | 402 | 48.2 | 38.9 | 9.4 | 17.5 |
| 상용직가구 | 359.4 | 500 | 53.4 | 43.3 | 10.1 | 17.5 |
| 비상용직가구 | 201.5 | 379 | 49.3 | 42.6 | 6.7 | 18.2 |
| 한부모가구 | 23.0 | 215 | 25.1 | 23.4 | 1.7 | 13.8 |
| 양부모가구 | 537.8 | 467 | 53.1 | 43.9 | 9.2 | 1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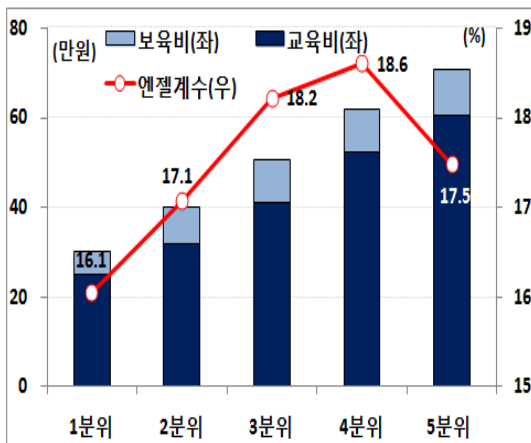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상용직은 상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자를 포함하고, 비상용직은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무직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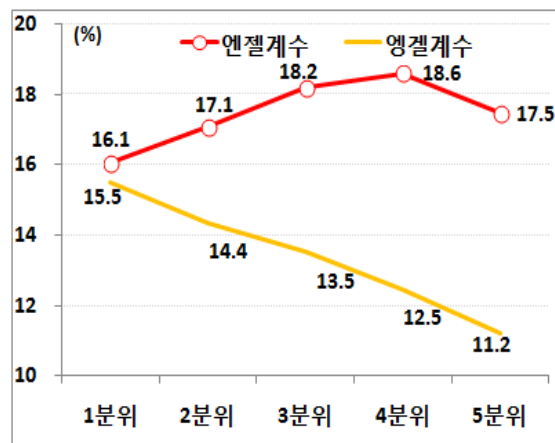
○ (소득계층별)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산층인 3, 4분위의 엔젤계수가 다른 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엔젤가구의 소득 5분위 가운데 4분위의 엔젤계수가 18.6%으로 가장 높고 3분위가 18.2%로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의 17.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이는 중산층으로 간주되는 3분위와 4분위의 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음을 보여줌
- 엔젤계수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고, 엔젤계수는 중산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엔젤계수는 소득 1분위가 15.5%로 가장 높고 소득 5분위가 11.2%로 가장 낮게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식료품비의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엔젤의 법칙(Engel’s law)’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반면, 엔젤계수는 소득 3, 4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고소득층보다도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해 과중함을 시사해 줌
- 반면 교육·보육비 지출액을 볼 때 고소득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보육비 지출 규모는 소득 5분위가 가구당 월평균 70.8만원으로 1분위의 30.1만원에 비해 2.4배로 나타남
 - 이는 고소득층일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기회가 주어짐을 보여주며, 계층별 교육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소득계층별 교육·보육비 및 엔젤계수 2013>



<소득계층별 엔젤계수와 엔젤계수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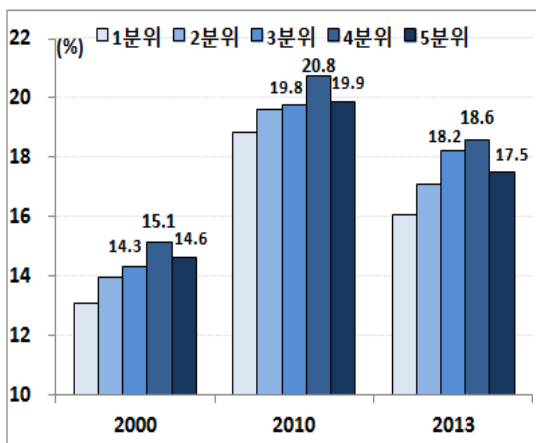


자료 : 1)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2) 소득계층 구분은 균등화가처분소득(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 \sqrt{n} 으로 나누어)을 기준으로 가구수를 상위부터 하위까지 5구간으로 나누어 최상위층(5분위)에서 하위층(1분위)까지 분류하였음.

○ (소득계층별 추이) 중산층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음

- 2000년~2013년까지 추이를 볼 때 4분위의 엔젤계수가 가장 높았고, 2013년 들어 3분위의 엔젤계수가 5분위를 추월
 - 2000년에는 4분위의 엔젤계수가 15.1%로 가장 높았고, 5분위가 14.6%, 3분위가 14.3%의 순으로 나타났음
 - 2010년에도 4분위(20.8%), 5분위(19.9%), 3분위(19.8%)의 순이었으나, 2013년 들어서는 4분위(18.6%), 3분위(18.2%), 5분위(17.5%)로 순서가 역전됨
- 교육비와 보육비 지출액은 고소득층일수록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추세가 유지
 - 교육·보육비 추이를 볼 때 5분위의 교육·보육비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이 가 2000년 35.0만원, 2010년 76.4만원, 2013년 70.8만원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다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교육·보육비 지출액의 차이는 이전보다 축소
 - 2000년에 1분위 대비 5분위 교육·보육비 지출액은 2.7배였으나 2010년과 2013년에는 2.4배로 교육·보육비 지출액 차이가 소폭 축소
 - 이는 사교육 등의 확대로 저소득층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도 해석됨

<소득계층별 엔젤계수 추이 2000~2013>



<소득계층별 교육·보육비 추이 2000~2013>

(단위: 만원/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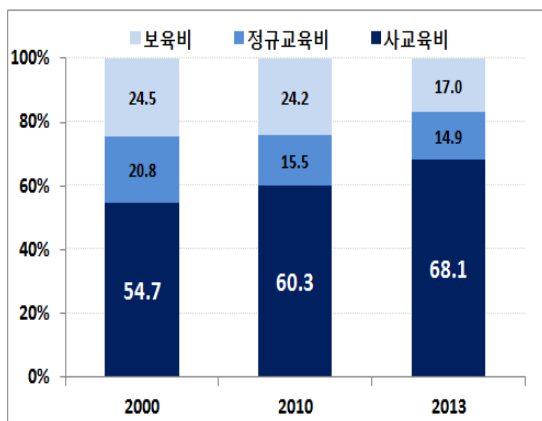
| 분위 | 2000 | | | 2010 | | | 2013 | | |
|----|------|-----|------|------|------|------|------|------|------|
| | 교육 | 보육 | 계 | 교육 | 보육 | 계 | 교육 | 보육 | 계 |
| 1 | 9.2 | 3.8 | 13.0 | 20.1 | 11.1 | 31.2 | 25.0 | 5.1 | 30.1 |
| 2 | 12.5 | 4.8 | 17.3 | 29.4 | 12.9 | 42.3 | 31.8 | 8.2 | 40.0 |
| 3 | 15.7 | 5.7 | 21.4 | 40.0 | 11.4 | 51.4 | 41.1 | 9.7 | 50.8 |
| 4 | 20.7 | 5.8 | 26.5 | 47.4 | 14.6 | 62.0 | 52.4 | 9.5 | 61.9 |
| 5 | 27.5 | 7.5 | 35.0 | 62.0 | 14.5 | 76.4 | 60.5 | 10.3 | 70.8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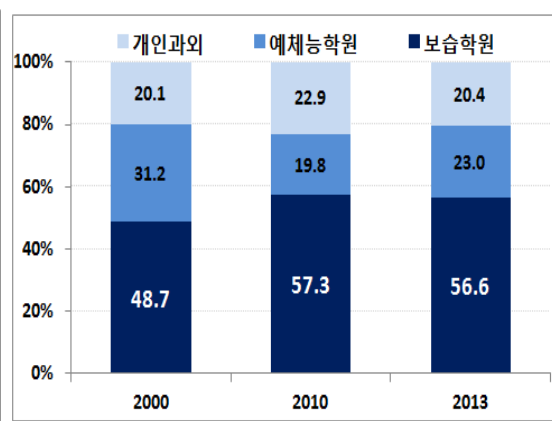
○ (사교육비) 정규교육보다 사교육비의 비중이 크고, 특히 입시 및 보습학원에 대한 지출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정규교육비 비중은 감소한 반면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증가
 - 정규교육비 지출 비중은 2000년 20.8%에서 2010년 15.5%, 2013년 14.9%로 감소세를 나타냄
 - 반면 사교육비는 2000년 54.7%, 2010년 60.3%, 2013년 68.1%로 증가세 지속
- 사교육비 중 보습학원비 지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사교육비 중 입시 및 보습 학원 지출 비중이 2000년 48.7%에서 2010년 57.3%, 2013년에는 56.6%를 차지하여 사교육비 지출 확대를 주도
 - 예체능 학원의 경우 비중이 축소. 개인과외비 지출은 2010년 소폭 늘었다가 2013년 다시 소폭 감소하여 20%대 초반에서 정체 상태
- 사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게 나타나면서 사교육비 지출 여력에 따른 교육 격차와 학력 대물림의 심화 우려
 - 상위 10%이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1.6만원인 반면, 하위 20%이내 학생은 16.2만원으로 상위 10%가 하위 20%보다 2배 정도 지출³⁾

<교육비 항목별 비중 추이 2000~2013>



<주요 사교육비 비중 추이 2000~201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주 : 1) 교육비 = 정규교육비+ 사교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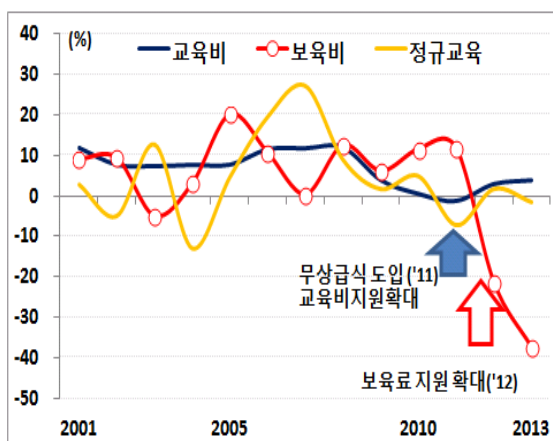
2) 사교육비중은 전체 교육비와 보육비에서 사교육비(학원 및 보습교육, 과외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3) 통계청, 201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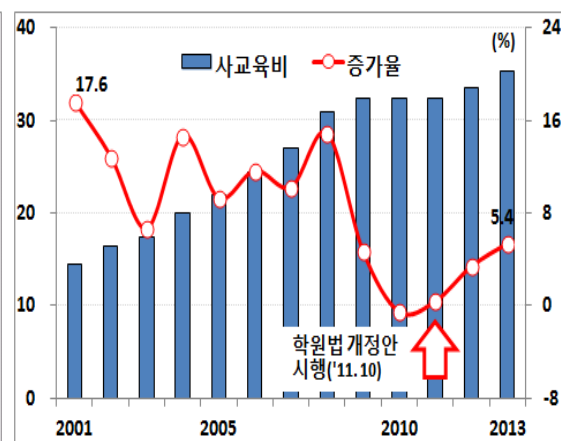
○ (정책적 측면) 정부의 교육·보육비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있지만, 사교육비 규제 효과는 아직 미미

-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전면 확대되면서 보육비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
 - 2012년에 이어 2013년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전면 확대되면서 가계보육비 지출 증가율이 2012년 -18.1%, 2013년 -23.5%로 크게 감소
 - 이는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정책이 가계 보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확대 및 방과후 돌봄 교실, 무상 급식 확대 등 교육비 지원 제도 도입 이후 교육비 증가율도 소폭 감소
 - 방과후 학교 수강권, 수업료, 수익자부담 경비(수학여행 등)지원 등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사업이 지속 확대되고, 원클릭 서비스 등 지원시스템의 개선 등으로 교육비 증가율이 감소
 - 사교육비를 제외했을 경우 정규교육비 지출증가율은 2011년 -7.3%, 2012년 1.7%, 2013년 -1.6%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
- 반면 학원비 규제를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사교육비 지출 증가세는 지속되어 규제효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임
 - 가계의 사교육비는 2013년 35.4만원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한 수준이며,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 상승률도 2013년 3.7%(소비자물가 1.3%) 규제 정책의 실효성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보임

<정부지원정책과 교육보육비 증가율 2001~2013>



<정부 규제와 사교육비 증가율 2001~201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자체 계산. 교육부.

주 : 가계동향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상 18세 미만 자녀있는 엔젤가구 추계가 2000년~2013년까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증가율 데이터는 2001년~2013년까지 추계하였음.

3. 시사점

- 교육·보육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계층별 지원책을 강화하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교육비와 보육비 비중, 즉 엔젤계수를 지속적으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엔젤계수는 여전히 17~1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가계수지 악화를 초래할 우려
 - 전반적인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교사 및 교육 프로그램 선진화, 국공립 보육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가계의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해야 함
 - 둘째, 취약 가구에 대한 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되어야 함
 - 특히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과 소비규모가 작은 빈곤층에 속할 가능성이 많아 그만큼 교육과 보육에 대한 많은 부담이 존재
 - 또한 여성가구나 맞벌이가구,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도 교육·보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업료 및 방과후 자유수강료 지급 확대, 학습교재나 교복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바우처 지급 등을 고려
 - 셋째, 교육·보육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입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정규교육에서 직업 및 적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입시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 양질의 모바일과 인터넷 교육방송(이러닝) 콘텐츠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확대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에 대한 수요를 전환
 - 지자체 단위의 공부방과 도서관 등을 늘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불필요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
 - 넷째, 교육·보육비 지원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 확충 및 규제 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무상급식이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실효성은 높으나,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
 - 풍선효과 등이 우려되므로 과도한 학원비 규제보다는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음성적인 초고액과외와 비인가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장 퇴출 기준을 강화

경제동향분석실 최성근 선임연구원(2072-6223, csk01@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 구분 | 2012년 | | | | | 2013년 | | | | | 2014년*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
| 미국 | 2.8 | 3.7 | 1.2 | 2.8 | 0.1 | 1.9 | 1.1 | 2.5 | 4.1 | 2.6 | 2.8 |
| 유로 지역 | -0.6 | -0.1 | -0.3 | -0.1 | -0.5 | -0.4 | -0.2 | 0.3 | 0.1 | 0.3 | 1.2 |
| 일본 | 2.0 | 3.7 | -1.7 | -3.1 | -0.2 | 1.7 | 4.8 | 3.9 | 1.1 | 1.0 | 1.4 |
| 중국 | 7.7 | 8.1 | 7.6 | 7.4 | 7.9 | 7.7 | 7.7 | 7.5 | 7.8 | 7.7 | 7.5 |

주 :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 구분 | 2012년말 | 2013년 | | 2014년 | | 전주비 | |
|----|------------------|---------|---------|---------|---------|---------|-----------|
| | | 6월말 | 12월말 | 6월 6일 | 6월 12일 | | |
| 해외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 1.70 | 2.46 | 3.03 | 2.59 | 2.60 | 0.01%p |
| | 엔/달러 | 85.86 | 98.51 | 105.04 | 102.48 | 101.70 | -0.78¥ |
| | 달러/유로 | 1.3222 | 1.3031 | 1.3799 | 1.3643 | 1.3552 | -0.0091\$ |
| | 다우존스지수(p) | 12,938 | 14,910 | 16,577 | 16,924 | 16,734 | -190p |
| | 닛케이지수(p) | 10,395 | 13,677 | 16,291 | 15,077 | 14,974 | -104p |
| 국내 | 국고채 3년물 금리(%) | 2.82 | 2.88 | 2.86 | 2.84 | 2.79 | -0.05%p |
| | 원/달러(원) | 1,070.6 | 1,142.0 | 1,055.4 | 1020.5 | 1017.2 | -3.3원 |
| | 코스피지수(p) | 1,997.1 | 1,863.3 | 2,011.3 | 1,995.5 | 2,011.7 | 16.2p |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 구분 | 2012년말 | 2013년 | | 2014년 | | 전주비 | |
|---------|--------|--------|--------|--------|--------|--------|--------|
| | | 6월말 | 12월말 | 6월 6일 | 6월 12일 | | |
| 국제 유가 | WTI | 90.89 | 96.52 | 98.55 | 102.72 | 106.47 | 3.75\$ |
| | Dubai | 107.99 | 100.38 | 107.88 | 105.31 | 106.96 | 1.65\$ |
| CRB선물지수 | 294.78 | 275.62 | 280.17 | 305.96 | 309.30 | 3.37\$ | |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 구분 | 2011 | 2012 | | | 2013 | | | 2014(E)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 |
| 국민계정 | 경제성장률 (%) | 3.7 | 2.5 | 2.1 | 2.3 | 2.4 | 3.5 | 3.0 | 3.8 |
| | 민간소비 (%) | 2.9 | 1.2 | 2.6 | 1.9 | 1.9 | 2.1 | 2.0 | 2.7 |
| | 건설투자 (%) | -3.4 | -3.2 | -4.6 | -3.9 | 6.4 | 7.0 | 6.7 | 2.5 |
| | 설비투자 (%) | 4.7 | 4.3 | -4.1 | 0.1 | -8.3 | 6.2 | -1.5 | 6.7 |
| 대외거래 | 경상수지 (억 달러) | 187 | 109 | 400 | 508 | 313 | 486 | 799 | 490 |
| | 무역수지 (억 달러) | 308 | 109 | 174 | 283 | 200 | 241 | 440 | 370 |
| | 수출 (억 달러) | 5,552 | 2,750 | 2,729 | 5,479 | 2,765 | 2,832 | 5,596 | 6,067 |
| | (증가율, %) | 19.0 | 0.5 | -3.1 | -1.3 | 0.5 | 3.8 | 2.1 | 8.4 |
| | 수입 (억 달러) | 5,244 | 2,641 | 2,555 | 5,196 | 2,565 | 2,591 | 5,156 | 5,697 |
| | (증가율, %) | 23.3 | 2.3 | -4.0 | -0.9 | -2.9 | 1.4 | -0.8 | 10.5 |
| 소비자물가 (평균, %) | 4.0 | 2.7 | 1.7 | 2.2 | 1.4 | 1.2 | 1.3 | 2.4 | |
| 실업률 (평균, %) | 3.4 | 3.5 | 2.9 | 3.2 | 3.4 | 2.9 | 3.1 | 3.1 | |
| 원/달러 환율 (평균, 원) | 1,108 | 1,142 | 1,112 | 1,127 | 1,104 | 1,086 | 1,095 | 1,070 | |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